

대한출판문화협회와 조선일보가 공동으로 펼치는 '거실을 서재로' 캠페인 보름 동안 23,000건이 넘는 사연 도착

사연을 올리면 추천이나 심사를 통해 서재와 책을 준다'는 것은 책을 좋아하는 이들에게는 가히 '환상적'인 이야기다. 매달 730명에게는 선반 3개, 박스 6개로 구성된 보급형 서재와 10만 원 상당의 책을, 매달 10명에게는 신청자의 거실에 맞는 맞춤형 서재와 50만 원 상당의 책을 준다는 구체적인 설명까지 더해지면 그 환상은 '현실'이 된다.

매일 집에 오면 습관처럼 텔레비전부터 켜고 그 앞에 다가붙는 가족을 떠올리면서 사기충천하여 캠페인 홈페이지(livingroom.chosun.com)에 접속하고 사연을 올린다. 이번 달에 안 되면 다음 달에 재응모가 가능하니 캠페인이 끝나는 12월까지 매달 도전하리라 마음먹고.

거실을 서재로 바꾼다? 그거 '환상적'이군

대한출판문화협회와 조선일보가 공동으로 펼치는 '거실을 서재로' 캠페인이 국민들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 3월 20일로 마감된 3월분 신청 사연은 총 22,627건. 3월 5일부터 사연을 받기 시작했음을 감안한다면 하루 수백 건에서 수천건의 사연이 올라온 셈이다.

개인과 사회가 지니는 경쟁력의 원천이 독서인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현실에서 그만큼 책을 읽고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바쁘다'는 핑계를 무기로 책을 읽지 않는 현대의 여백을 메우는 것은 텔레비전과 인터넷. 이런 시점에서 '거실을 서재로'라는 대규모 캠페인은 책에 대한 관심을 국민적으로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게다가 거실이 책으로 인해 문화적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발상은 현대인의 '웰빙' 욕망과 맞물리면서 더욱 큰 반응을 끌어내고 있다.

'거실을 서재로'에 대한 이런 호응에 놀란 것은 출판계도 마찬가지. 이 캠페인을 통해 연말까지 전국 7,300 가구에 책 7만 8,000권을 나눠주게 되는데 도서 공급과 기금 협찬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실질적으로도 출판사들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조선일보 김문순 발행인과 함께 이번 캠페인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박맹호 출협 회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거실을 서재로'가 "세계 초유의 독서문화운동"이 될 것이라고 자신하며 "출협 800개 회원사가 각각 50만 원짜리 계좌를 만들어 이 캠페인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장기적인 독서문화운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거실을 서재로'의 가장 큰 힘은 무엇보다 신청자들이 직접 보내는 구구절절한 사연에 있다. 딸아이와 떨어져 살았던 아빠가 소원한 부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책을 읽으며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사연, 말을 배우는 아이가 '아빠, 텔레비'라는 말부터 배워 걱정스럽기 그지없다는 엄마의 사연, 장어를 가진 딸아이가 바깥 활동을 못하는 대신 책에 흥미를 붙였는데 집에 제대로 된 서재를 만들어 주고 싶다는 사연 등등 때론 감동적이고, 때론 절실하다. 읽다보면 눈시울이 붉어질 정도로 절절하지만 가슴 한켠이 씩씩해 오는 것은 이렇게 많은 이들이 책을 그리워하고, 독서를 할 준비가 되어있음에도 경제적, 환경적으로 그런 여유가 허락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현실 때문이다.

'거실을 서재로' 사무국의 이순덕 과장(대한출판문화협회)은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연들 외에도 사무국으로 직접 보내온 편지만 800통이 넘는다(3월 20일 집계)"면서 "사연의 대부분이 그동안 잊고 지



냈던 독서의 가치와 가족간 대화를 되찾고 싶다는 희망을 나타내는 뜨겁고 진솔한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 29일 첫 번째 당첨자가 발표되면서 신청자들의 희비가 엇갈렸지만 4월분에 해당하는 2차 신청사연을 받고 있는 홈페이지의 열기는 여전하다.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조선일보의 김광일 문화부장은 ‘거실을 서재로’가 이렇게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평소 책을 통해 삶의 진정한 자양분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온 국민들의 오래된 믿음 때문”이라며 “주택건설 회사들은 앞으로 시공하는 공동주택의 거실을 책 읽는 공간으로 바꿀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할 것이라 밝혀왔고, 대형서점들은 후원사나 협찬사로 참여하는 것 외에도 회원들을 상대로 캠페인을 확장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캠페인이 이미 크고 작은 기업과 서점으로 확산되어 독서문화운동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는 셈이다. 또한 캠페인 사무국은 거실을 서재로 바꾸어주는 신청 외에도 이미 거실을 서재로 바꾼 이들의 체험 수기나 당첨자들의 디카 에세이 등을 지속적으로 소개하면서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장기적인 독서문화운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취재 이주연 기자 | 사진 제공 조선일보

▽ 아래는 3월 20일 마감된 ‘거실을 서재로’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연들 중 일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아이에게 더 많은 책을 만들어주려 합니다.

“... 처음부터 아이가 책을 완전히 벗 삼지는 못했지요. 어느 정도 아이가 책을 놓지 않고 화장실에도 책을 가지고 가는 정도가 되자 거실을 서재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꿈처럼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거실에 맞춘 책장을 하기엔 비용적인 부담이 컸기에 차라리 그 돈으로 아이와 함께 조금씩 책을 사서 늘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의 손때가 묻은 책들을 하나씩 채워나가면서 책장을 키우는 것이 조금씩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거실을 서재로’ 캠페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가 바라는 그런 서재형 거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바로 들어와서 이렇게 신청하게 되었지요. 먼 훗날 저희 부부가 세상을 등질 때, 두 아이의 기억 속에 있는 부모님의 모습이 이렇게 되기를 꿈꾸어봅니다.

‘내 부모님은 늘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우리와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를 즐기셨지. 영원할 수 있는 좋은 벗 하나를 우리에게 선사해주신 것처럼. 내 아이와 나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랄 뿐이야.’ ”

(정재민)

어머니 위한 서재, 가족을 위한 서재

“어머니 연세, 선 그리고 넷. 늦게 공부를 다시 시작하셨을 때가 벌써 3년 전입니다. 저는 속으로 너무 늦은 나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 그리고 어머니는 3년이 지난 올해 대학에 합격하게 된 것입니다. 대입 검정고시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고 거의 18:1의 경쟁률을 뚫고 대학에 입학하셨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학교에 첫 수업 받으러 가는 날입니다. 선 넷의 대학생이라. 정말 놀랍고 멋지지 않나요? 앞으로 대학공부에 매진하게 될 어머니를 응원하기 위해 저희 집 거실에 책장을 놓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어머니는 책을 사오면 둘 곳이 없어서 안방 바닥에 작은 간이 책장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머니가 대학생 활을 하면서 더 많은 책을 보실 텐데 마땅히 손쉽게 책을 보관할 곳이 없군요. 가족과 어머니를 위한 책장 신청해봅니다.”

(정유곤)